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른 주공간 사용 변화에 관한 연구

- 가족형태 변화와 주공간의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dwelling Space according to the Growth of Children

- Focused on the Correspondence of the Family Life Cycle
to dwelling Space -

박 현 아* · 박 용 환**
Park, Hyun-Ah · Park, Young-hwa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using & change of the residential space according to the children age and family life cyc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as children grow up, children's activity space changed from living room to the private room, and housing condition was related to the frequency of each activity.

The second, as children grow up, family's sleeping pattern changed, and this change effected the number of private rooms for sleeping and the use of the extra room.

The third, changes of the using of dwelling space come out several pattern, increasing bedroom number through reconstruction, exchange of An-bang and children room, parents' sleeping space move to living room, and change the function of rooms. The change pattern of the correspondence to the housing needs differed from each family life cycle stage.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 유입과 가구수의 증가로 인한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동주택은 위생적인 생활과 주거수준 향상, 도시의 주거안정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안이 되었으며, 대표적인 도시주거의 유형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급위주의 획일화된 평면형이 비판을 받으면서 다양한 주생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주거의 계획은 주생활상을 파악하고 주요구에 따른 대응관계를 밝히는 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의 생활주기는 주생활을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졌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의 사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생활상의 전개, 주거이동, 주공간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가족주기의 기준이 되는 자녀를 중심으로 각 성장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주생활과 이에 따른 주공간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부분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 변하는 주생활 및 공간변화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의 주거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정희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과정

** 정희원,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공학박사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자녀의 성장과정 및 가족생활주기 단계의 거주자 특성과 실 개수 및 공간구성의 주거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가족의 주생활과 주거공간의 사용실태 및 변화내용을 이에 따른 종속 변인으로 하여, 상호 대응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개념으로 하였다.

연구의 범위로써는 첫째, 주거 내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주생활 행위들이 주공간의 어느 곳에서 발생하는가를 조사함으로써 공간사용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주공간 사용실태를 실의 용도 및 가구사용을 통해 분석하며, 셋째, 가족생활주기의 단계적 변화에 따라 발생한 주공간 사용 변화내용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주생활 행위의 분류는 김미희(1992)와 임미숙(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구성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였으며, 가족생활주기의 구분은 자녀의 학령을 기준으로 구분한 김수암(1992)의 분류체계를 따랐다. 주공간 사용 특성은 크게 공격공간과 사적공간으로 분류하고, 사적공간 내에서는 취침실과 여유실로 구분하여 실의 용도에 따라 나누었다. 주공간 변화는 입주시점과 현시점을 비교하여 변화의 내용을 추적하였으며 자녀의 성장단계와 관련이 있는 내용에 한정하였다. 조사대상은 주생활의 요구에 따라 주공간의 사용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소규모 아파트에 한정하며, 가족생활주기의 단계적 변화를 거친 거주자 중에서 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핵가족을 중심으로 하였다.

II. 가족생활주기와 주생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가족생활주기와 주공간의 관계

가족생활주기는 자녀의 출생과 성장으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거치게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각 단계의 가족들은 다른 단계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에 의해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도 변화한다. 이러한 주요구를 수용하기 위

해서는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른 생활특성을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변화하는 주요구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松井詠子, 1993).

Newmark & Thompson(1977)은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되면서 주거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욕구는 확대되거나 축소되며, 이러한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주거환경에 다양하게 반응한다고 하였으며 Mcauley & Nutty(1982)는 주거선호의 양상은 가족생활 주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Morris(1976)는 주거이동, 주거개조 및 적응 행동은 주거적합성의 관점에서 야기되었다고 하였으며, 주거적합성의 판단은 주거욕구를 변화시키는 가족생활주기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윤영선은 가족생활주기는 서로 다른 주거욕구를 나타내므로 주거내부의 공간적 특성의 선호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연숙 외, 1993, 재인용).

2. 자녀의 성장과 주거공간의 대응

건축심리학자인 고바야시(1975)는 발달이란 행동이 분화되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혹은 그들을 더 한층 통합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모든 분화와 통합의 과정은 공간을 질서 있게 하는 계획에 깊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아동의 성취와 독립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임미숙, 1992).

표 1. 자녀성장에 따른 주공간의 요구사항

분류	성장단계별 특성 및 주요구
유아기 (乳兒期)	급격한 신체적 발달을 보이는 시기로 아기의 생활 장소와 보호자 동선을 고려한 공간계획이 요구되며, 보호자의 영향권 내에 자녀공간을 마련, 충분한 바닥 면적과 안전성 확보 요구
유아기 (幼兒期)	주거에서 생활습관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한 환경 장치 요구. 일상적인 생활행동은 정해진 장소에 대응함으로써 행동을 구체적으로 예측, 생활습관을 확립할 수 있다.
학동기 (學童期)	자녀 활동범위 확대와 가족의 대화, 접촉이 증대. 이 시기의 자녀실은 자기관리할 유도하기 위한 공간적인 배려가 요구되며, 생활은 가족 안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지 않도록 한다.
청소년기 (尙少年期)	이성자녀간 취침실 분리요구. 간섭을 싫어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하게 되며 스스로 자신의 공간을 장식하기도 한다. 자녀실은 부모로부터 공간적으로 독립되며, 자주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공간적 배려 요구

출처: 松井詠子, 住生活論, 1993, P.74

아동은 성장발달단계에 따라 그 특성이 매우 다르므로, 각각의 시기에 적합하게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성장에 따른 장래를 내다본 주거공간의 계획이 요구되며, 이 때에는 아동에게만 한정된 의미가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 함께 변하게 되는 가족의 주생활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松井艶子, 1993).

거주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가장 적극적인 주거조절행위이다.

Priemus(1986)는 거주자와 주거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관계에서 주거조건과 거주자요구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행동의 유형으로 주거이동, 개조, 용도변경, 태도변화, 그대로 적응, 부적응의 5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유영국, 1992. 재인용).

3. 주요구에 따른 주거공간의 조정

가족과 주택공간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거주공간이 거주자의 환경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거주자는 수동적 태도로서 부적응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제시된 주거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한다. Morris & Winter(1978)는 이러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주거조정행위를 그 성격에 따라 주거조절과 주거적응으로 구분하였는데, 주거조절(住居調節: housing adjustment)은 주거이동, 주거증개축 등 적극적인 성격의 행동이며, 주거적응(住居適應: housing adaptation)은 현 주거에 그대로 만족하거나, 주거조건에 따라 가족을 조절하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주거조정행위의 형태에 따라 거주자가 느끼게 되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의 정도는 다르게 되며 주거이동은

Ⅲ. 주생활의 공간대응 실태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실태조사와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 사용특성과 일상생활별 이용장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거주기간 동안의 주거조정행위는 거주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각 세대를 방문하여 준비된 조사표에 공간사용현황을 기재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동시에, 주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단지는 일정 거주기간이 지난 수도권권의 주공아파트 중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의 다양한 평면형이 공급된 곳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96년에 입주한 인천시의 B주공아파트에서 4가지 타입의 평면형을 선정하였다(표2). 본조사

표 2. 조사대상 아파트 평면개요 및 특성

유형	A	B	C	D	
규모, 주동형식	50m(22평), 편복도형	60m(26평), 편복도형	60m형(26평), 타워형	60m형(26평), 타워형	
전면, LDK구성	2bay-LDK	2bay-LDK	2Bay-LDK	3bay-L/DK	
방수	2	2(변경후 3)	3	3	
평면도					
면적 (㎡)	침실1	11.26	12.26	13.41	12.26
	침실2	6.81	11.57	7.53	8.32
	침실3	-	-	7.45	7.60
	거실	10.21	12.26	12.36	8.77
	주방	14.67	15.03	11.81	15.06
조사세대수	29세대	31세대	23세대	17세대	

는 2000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의 기간동안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가구는 A형 29가구, B형 31가구, C형 23가구, D형 17가구로 총 100가구를 조사하였다.

2. 조사대상 단위평면의 특성

조사된 평면은 방의 개수 및 LDK 구성이 서로 다르게 계획되었는데, 복도식 주동에 공급된 A, B 평면은 2-LDK로, 타워형 주동에 공급된 C, D형은 3-LDK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평면의 특성을 살펴보면, A형은 분양시기에 거실 미닫이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주문식 주택이었으며, B형은 가변형으로 설계되어 필요에 따라 R2를 들로 구획할 수 있는 가변형 평면이었다. C형은 R2, R3가 복도에 면해 있으며, 일체형의 LDK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면에 3실이 배치된 D형은 MR과 R2가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었고 R3에 불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실 면적을 비교해보면, A, C, D평면의 거실과 주방면적은 23~24㎡로 유사하였으며 B형(24.17㎡)이 가장 컸다. 안방 면적은 11.26㎡~13.41㎡에 분포하며, R2는 B(11.57㎡)형의 면적이 가장 컸다.

3. 거주자 일반사항

평균거주기간은 3.8년으로 3년 이상 거주세대가 65%이상이며, C타입이 다른 평면형에 비해 평균거주기간이 짧게 나타났다. 거주자의 주택소유 형태는 자가 80%로 자가비율이 높았다. 전체 평균 가족수는 3.8인이며, 3인 가족과 4인 가족이 전체세대의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타입별 가족수 평균은 A형 3.7명, B형 3.9명, C, D형 4.0명으로 평형규모가 작은 A형의 가족수가 가장 적었다.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38.0세, 주부의 연령은 평균 35.3세로 30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30대가 주된 거주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세대 자녀의 평균연령은 7.6세로, 만3세~만9세가 전체의 59.7%를 차지하고 있었다. 딸자녀의 평균연령은 8.8세이며, 딸자녀의 연

령을 기준으로 가족생활주기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 분포를 살펴보면, 딸자녀가 취학 전 연령인 Co, Cb, Ci단계가 32%, 초등학교시기인 Cj, Ck 단계가 50%, 중학생 이상인 세대(Cs, Ca, Ca')가 12%, 직계, 방계가족¹⁾ 동거세대가 7%를 구성하고 있었다.

표 3. 가족생활주기단계 분포 (단위: 세대수)

단계 평면	Co	Cb	Ci	Cj	Ck	Cs	Ca	Ca'	α	β	計
A	1	5	6	8	5	1		1	1	1	29
B			6	9	9	1	1	3		2	31
C		2	5	6	4	1	2	1		2	23
D	1	2	4	5	3	1			1		17
計	2	9	21	28	21	4	3	5	2	5	100

- Co: 부부
- Cb: 부부 + 딸자녀 연령 2세 이하
- Ci: 부부 + 딸자녀 연령 7세 이하 (취학전 연령)
- Cj: 부부 + 딸자녀 연령 10세 이하 (1학년~3학년)
- Ck: 부부 + 딸자녀 연령 13세 이하 (4학년~6학년)
- Cs: 부부 + 딸자녀 연령 16세 이하 (중등학교)
- Ca: 부부 + 딸자녀 연령 19세 이하 (고등학교)
- Ca': 부부 + 20세 이상 자녀
- α : 직계가족과 동거, β : 방계가족과 동거

4. 자녀 일상행위의 공간대응 현황

자녀의 일상행위의 발생장소를 조사한 결과 평면형에 따라 행위별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표 4). 2침실로 구성된 A, B형에서는 거실의 사용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3침실로 구성된 C, D에서는 R2, R3 사용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A형에서는 다른 평면형과 비교했을 때 거실의 사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같은 침실수로 구성된 B형과 비교했을 때에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각 행위별로 실사용 빈도를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행위는 자녀의 놀이/취미로A에서의 R2의 사용비율은 다른 평면형에 비해

1) 혈족은 직계(直系)와 방계(傍系)로 나뉘는데 자기와 직결로 이어지면 직계가족으로(아버지와 아들, 손자), 가지를 뻗어 이어지면 방계가족(형제자매, 백숙부, 조카)으로 구분한다.

20%가량 낮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거실과 발코니의 사용비율이 높게 나타나, 협소한 실 면적으로 행위에 제약이 따랐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자녀실 사용에서 A형과 B형간에 10%이상의 차이를 보인 행위는 공부/학습과 강의인데, 이는 책상, 수납장 등의 가구와 연관된 행위로서, 방이 좁은 관계로 가구배치가 곤란하여 가구와 연관된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의 개수가 많을 때에 자녀의 주생활이 개실에서 이루어지는 빈도가 높아지며, 같은 실 구성을 가진 평면형에서는 자녀실의 면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평면형별 자녀의 일상행위장소 N(%)

활동	실	A(50명)	B(55명)	C(41명)	D(30명)
공부/학습	거실	22(44.0)	14(25.5)	9(22.0)	12(40.0)
	방1	5(10.0)	4(7.3)	0(0)	1(3.3)
	방2	21(42.0)	30(54.5)	21(51.2)	17(56.7)
	방3	-	5(9.1)	11(26.8)	1(3.3)
	주방	2(4.0)	2(3.6)	0	0
놀이/취미	거실	29(58.0)	23(41.8)	14(34.1)	9(30.0)
	방1	5(10.0)	2(3.6)	2(4.9)	1(3.3)
	방2	13(26.0)	26(47.3)	18(43.9)	14(46.7)
	방3	-	3(5.5)	6(14.6)	6(20.0)
	발코니	3(6.0)	1(1.8)	1(2.4)	0
친구놀이	거실	18(36.0)	17(30.9)	11(26.8)	9(30.0)
	방1	7(14.0)	2(3.6)	0	1(3.3)
	방2	22(44.0)	31(56.4)	20(48.8)	11(36.7)
	방3	0	4(7.3)	10(24.4)	9(30.0)
	발코니	3(6.0)	1(1.8)	0	0
휴식	거실	44(88.0)	40(72.7)	33(80.5)	28(93.3)
	방1	2(4.0)	10(18.2)	1(2.4)	0
	방2	8	3(5.5)	4(9.8)	2(6.7)
	방3	-	1(1.8)	3(7.3)	0
	주방	-	1(1.8)	0	0
식사	거실	14(28.0)	27(49.1)	30(73.2)	18(60.0)
	주방	36(72.0)	28(50.9)	11(26.8)	12(40.0)
취침	거실	10(20.0)	3(5.5)	3(7.3)	3(10.0)
	방1	20(40.0)	21(38.2)	10(24.4)	14(46.7)
	방2	20(40.0)	25(45.5)	18(43.9)	12(40.0)
	방3	-	16(10.9)	10(24.4)	1(3.3)
강의	거실	28(56.0)	23(41.8)	14(34.1)	9(30.0)
	방1	7(14.0)	4(7.3)	2(4.9)	1(3.3)
	방2	15(30.0)	25(45.5)	18(43.9)	14(46.7)
방3	-	3(5.5)	7(17.1)	6(20)	

자녀의 연령별로 일상행위의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놀이/취미, 친구놀이 장소의 경우 취학이전의 자녀는 주로 거실을, 취학연령 이후의 자녀는 주로 R2, R3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

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취학을 기점으로 학습과 관련된 가구가 도입되면서 자녀실이 확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표 5).

표 5. 자녀연령별 일상행위 장소 (단위 : %)

항 목	연령 실	0세	3세	8세	11세	14세
		~2세 (22명)	~7세 (58명)	~10세 (47명)	~13세 (30명)	(19명)
공부/ 학습	거실	81.3	50.0	14.3	9.4	10.0
	방1	0.0	3.2	8.2	6.3	10.0
	방2,3	18.8	43.5	73.5	84.4	80.0
	주방	0.0	3.2	4.1	0.0	0.0
놀이/ 취미	거실	72.2	54.4	24.4	20.0	33.3
	방1	0.0	3.5	8.9	6.7	9.5
	방2,3	16.7	38.6	64.4	73.3	57.1
	식당	0.0	1.8	0.0	0.0	0.0
	발코니	11.1	1.8	2.2	0.0	0.0
친구 놀이	거실	66.7	41.1	16.7	19.4	16.7
	방1	0.0	3.6	6.3	6.5	11.1
	방2,3	26.7	53.6	72.9	74.2	72.2
	발코니	6.7	1.8	4.2	0.0	0.0
휴식	거실	81.3	83.6	83.3	93.1	60.0
	방1	18.8	5.5	8.3	3.4	5.0
	방2,3	0.0	7.3	8.3	3.4	35.0
	식당	0.0	3.6	0.0	0.0	0.0
식사	거실	60.3	49.2	41.7	58.6	52.6
	식당	39.7	50.8	54.2	41.4	47.4
취침	거실	23.5	17.5	6.3	3.2	5.6
	방1	70.6	45.6	35.4	19.4	16.7
	방2,3	5.9	36.8	58.3	77.4	77.8
강의	거실	57.9	64.3	32.7	25.8	5.6
	방1	26.3	16.1	28.6	19.4	16.7
	방2,3	15.8	19.6	38.7	54.8	77.8

2세 이하의 자녀의 놀이 장소에서 발코니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상이었으며,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거실전면의 발코니를 개조하거나 매트 깔아서 자녀의 놀이공간 및 놀이기구의 보관장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1. 발코니의 놀이공간 활용예

취침의 경우 2세이하 자녀는 거실(23.5%)과 안방(70.6%)에서 취침하는 비율이 90%이상으로 부모와 함께 취침하며, 3세~7세까지는 50%이상의 자녀가 거실, 안방에서 취침하나, 6세 이후부터는 R2, R3에서 취침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통해서도 자

녀의 취학을 기점으로 자녀실이 독립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휴식 장소는 전 연령대에 걸쳐 거실이 가장 주된 곳이나, 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R2, R3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의생활과 관련되어, 취학이전 자녀의 경우는 거실에서 50%이상이 이루어졌으며,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거실 가구에 자녀 옷을 수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인 8세~10세의 기간에는 거실, 안방, 작은방에 고루 분포하게 되며,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부터는 작은 방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자녀의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공간사용 특성을 정리하면, 0세~2세 시기에는 거실과 안방에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다가, 3세~6세 시기에 거실과 자녀실로 분산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여, 7세 이상의 시기부터 행위의 특성에 따라 거실과 자녀방으로 활용 영역이 뚜렷이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의 사적 행위는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적공간에서 사적공간인 자녀실로 정착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녀의 취학시기가 주생활 변화의 주된 동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공간 사용변화

1. 가족생활주기단계별 각실 사용 분석

1) 가족생활주기단계별 취침실 분포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침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방의 개수를 분석한 결과, Ci단계이하는 1실만 사용하는 세대가 대부분이었으며, Cj단계에서는 2실을 사용하는 세대가 가장 많았고, 1개실을 사용하는 세대수와 3개실을 사용하는 세대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Ck단계에서는 1실 사용 세대가 거의 없었으며, 이전 단계에 비해 3개실을 침실로 사용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었다.

표 6. 가족생활주기별 사용 침실 수 (단위: 세대수)

단계	Co	Cb	Ci	Cj	Ck	Cs	Ca	Ca'	α	β
1개	2	8	13	4	1	-	-	-	-	-
2개	-	1	8	22	15	1	4	2	2	1
3개	-	-	-	5	5	2	-	-	-	-

2) 가족생활주기단계별 취침형태 분포 특성

부모와 자녀간 취침공간의 통합, 분화의 성격에 따라 취침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취침형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취침하는 형태(PCC, PC: 26세대)와, 부모-자녀간에는 분리되고 자녀는 한방을 사용하는 형태(P+CC: 33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7).

표 7. 평면형별 취침형태 (단위: 세대수)

취침형태	i	ii	iii	iv	v	tot
A	10	5	11	1	2	29
B	7	3	8	13	-	31
C	6	2	9	5	1	23
D	3	5	5	2	2	17
합	26	15	33	21	5	100

- i. PC, PCC : 부모와 자녀의 취침공유
- ii. PC+C: 부모와 자녀 일부가 함께 취침, 일부 자녀 분리
- iii. P+CC: 부모와 자녀의 취침 분리, 자녀간 미분리
- iv. P+C, P+C+C : 부모와 자녀의 취침 분리, 자녀간 취침 분리
- v. 기타 : 성별에 따른 취침분리, 부모의 별실 취침 등

취침 형태 중에서 부모와 자녀의 일부가 함께 취침하고 일부는 분리된 PC+C가 자녀와 부모간 분리되고 자녀는 함께 취침하는 P+CC에 비해 적게 나타나 자녀의 연령이 어리거나 동성자녀일 경우에는 두 자녀가 부모로부터 함께 취침이 분리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평면형에 따른 취침유형의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2침실로 구성된 A형과 B형에서 B형이 A형에 비해 P+C, P+C+C의 분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 B형의 P+C+C(8세대)형태는 R2를 구획하여 사용하는 세대와 거실에서 취침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였다. 3침실로 구성된 C, D형에서는 P+CC가 P+C+C보다 높게 나타나, 실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들의 취침은 한 방에

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한 방은 침대 및 옷장을 두어 침실로 사용하고 남은 방에는 책상과 책장등을 두어 공부방으로 사용하는, 기능에 따른 실사용 특성을 볼 수 있었다.

표 8. 가족생활주기별 취침형태 (단위: 세대수)

가족 유형	Co	Cb	Ci	Cj	Ck	Cs	Ca	Ca'	a	β	計
i		7	11	4	1					3	26
ii			7	3	3				1	1	15
iii			3	16	11	1	1		1		33
iv				4	6	3	2	5		1	21
v	2	2		1							5
소 계	2	9	21	28	21	4	3	5	2	5	100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가족의 취침 형태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표 8), Cb~Ci 단계까지는 PC, PCC가 주된 취침유형으로 Cj단계에서도 가족이 모두 함께 취침하는 세대가 있었다. Cj단계에서는 P+CC의 취침형태를 중심으로 부모-자녀간의 취침분리와 미분리가 혼재되어 있었으며, Ck단계에서는 P+CC와 P+C+C가 주된 취침형태로서 자녀간의 침실분리와 침실공유가 함께 나타났다. 자녀들 간에 취침실이 분리되는 P+C+C의 취침형태는 Cj단계에서 처음 출현하며, 이후로는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자녀의 취침분화는 아동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거의 일반화되며, 이 시기부터 자녀간 침실의 분리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여유실 용도 분석

침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여유실을 가족생활주기단계별로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결과(표10), 자녀들의 놀이, 공부방 및 창고의 용도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Co 단계에서는 서재, 취미, 작업실의 용도로 여유실을 사용하다가, Cb단계에서는 여유실의 용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자녀가 아직 어린 관계로 주거내의 모든 생활이 부모와 함께 이뤄짐으로써 아직까지는 부부의 필요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Ci 단계에서는 자녀의 놀이방, 공

부방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Cj단계 이후에서는 자녀의 취침 분화에 따른 개실화로 인해 여유실의 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표 9. 가족생활주기별 여유실 용도 (단위: 세대수)

용도	Co	Cb	Ci	Cj	Ck	Cs	Ca	Ca'	a	β	計
서재	2	2	2								6
놀이, 공부방		2	17	8	3		1	1		1	33
취미, 작업실	1	1	2	2	1			1	1		9
창고		3	2	3	1			1			10
없음		1	3	14	16	4	1	3		4	46
소 계	3	9	26	27	21	4	2	6	1	5	104

2. 가족단계에 따른 주공간 사용변화분석

1) 자녀의 성장에 따른 주공간 사용변화

거주기간 동안을 통하여 자녀의 성장과 관련 되어 나타난 주공간 사용변화의 내용을 취침행위를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변화를 겪지 않은 세대가 전체의 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변화가 발생한 세대는 전체의 32%이었다.

변화의 유형을 구분해보면, 개조로 나타나는 물리적인 공간변화와 실의 용도 및 사용자 변화로 나타나는 적용의 두가지로 볼 수 있었으며, 개조사례는 공동주택 구조상의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서 일부 세대에서만 나타나고 있었다.

(1) 개조

개조는 주생활 변화에 따라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자녀의 성장과정 변화에 따라 나타나게 된 개조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방 수를 확보하기 위한 개조행위와 개실의 수와는 무관하게 주거공간의 일부를 변경하는 개조행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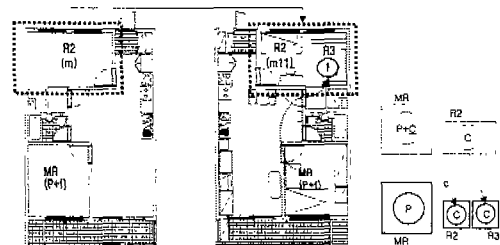


그림 2. 개조에 의한 개실 증가사례(Ck, 4인가족)

이중에서 개실수와 관련된 개조행위를 살펴보면, B형 3세대 중에서 5세대가 개조를 하여 R2를 두 개의 침실로 변경하였는데, 그 중 3세대는 이성자녀를 둔 4인 가족으로 막내자녀의 취학을 (Ck: 3세대) 계기로 방을 나누게 되었으며(그림 2), 나머지 2세대는 동성자녀로 구성된 세대에서 자녀가 성장하면서 독립된 공부방을 요구함에 따라 맏자녀의 진학을 계기로(Cs: 1세대, Ca: 1세대) 개조를 시행하였다.

방 수와는 무관하나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라 공간의 일부를 변경한 개조행위도 나타났는데, 거실의 창고를 막고 자녀실에서 문을 내어 자녀의 붙박이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와(Ck: 2세대), 거실 발코니의 바닥면을 높이는 개조를 통해 자녀의 놀이공간을 확보한 사례가 있었다(Ci: 6세대, Cj: 3세대).

(2) 안방과 자녀실의 轉用

현재 MR을 자녀실로 사용하고 부모는 R2 또는 R3를 사용하는 사례로 이미 부모와 자녀가 취침이 분리된 상태에서 부모와 자녀간에 침실을 교체하거나(그림 3), 부모와 자녀간 취침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녀는 그대로 MR에 남고 부모가 다른 실로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둘 이상의 동성자녀를 둔 가족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적응의 형태로 A형 3세대(Cj: 2, Ck: 1세대), B형 3세대(Cj: 1, Ck: 1, Cs: 1세대), D형 4세대(Cj: 3, Cs: 1세대)가 안방을 자녀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해당 세대 모두 맏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이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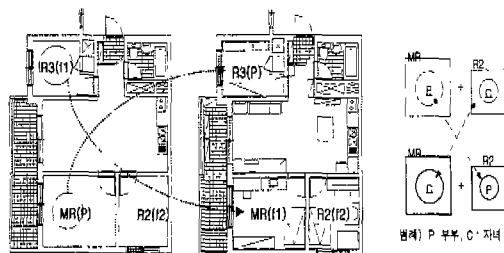


그림 3. 안방과 자녀실의 전용사례(Cs, 4인가족)

(3) 부모의 거실취침

가족수에 비해 실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방을 자녀가 사용하고, 부모가 거실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실이 부부침실에 비해 우선하여 확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에는 부부소유의 가구(장롱, 침대 등)는 그대로 안방에 놓여있고 취침행위만 이동하거나, 가구도 함께 이동하여 거실 겸 안방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있었으며, A형 1세대(Ck: 1세대), B형 4세대(Ck: 2세대, Cs: 2세대)로 5세대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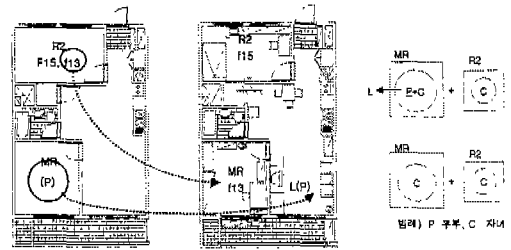


그림 4. 안방 겸 거실의 이용사례(Cs, 4인가족)

(4) 가족의 거실 취침

실의 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거실에서 취침하고 있는 사례로서, 가구의 이동은 동반하지 않고, 취침행위만 거실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A형 2세대(Ci: 1세대, Cj: 1세대), B형 1세대(Cj: 1세대), C형 1세대(Ci: 1세대), D형 1세대(Cj: 1세대)로 총 5세대였으며, 모두 4인 가족으로 가족단계 Ci, Cj단계에서 집중되어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한 결과 자녀가 어려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거나, 취침행위를 가족간 단란으로 여기고 있는 가족이었으며, 그러한 요구에 반해 안방의 규모가 협소하거나 답답하여 거실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취침하고 있었다.

(5) 개실의 용도변화

실의 용도변화는 용도실²⁾에서 취침실로의 변화와 반대로 취침실에서 용도실로의 변화사례가 있었는데,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것은 취침실의

2) 취침 이외의 용도(서재, 작업실, 창고, 등)로 사용하는 방

증가를 위한 용도변경으로, 자녀의 출생이나 성장을 계기로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실을 자녀실로 변경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안방과 자녀방의 교체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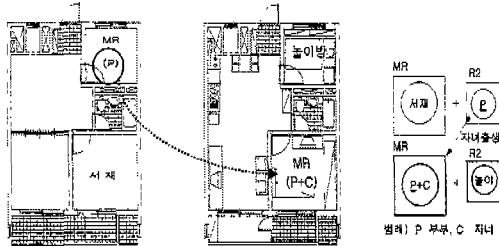


그림 5. 실의 용도 변경 사례(Ci, 3인가족)

2) 주공간 사용변화 분석

주거공간 사용변화의 주된 요인은 실의 개수와 관련된 것과 다른 하나는 실의 면적과 관련된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각 요인에 따라 변화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났다. 개실의 증가와 부모의 거실취침, 실의 용도변경은 실의 개수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안방과 자녀실 교환, 가족의 거실 취침은 실 면적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나타난 변화의 형태이며, 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라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실의 개수와 관련된 변화내용 중 개실의 증가, 부모의 거실취침형태는 Ck단계 이후에 분포하며, 실의 용도변경은 Ci~Ck에 분포하고 있었다. 침실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주거공간의 개조와 취침행위의 조정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증개축이 용이한 주거에서는 개조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실의 면적과 관련된 변화내용 중에서 가족이 거실에서 취침하는 형태는 가족이 함께 취침하기 위해 넓은 실면적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서 Ci, Cj단계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안방과 자녀실의 교환은 Cj단계 이후부터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 자녀의 가구 및 물건이 증가함으로써 충분한 실면적이 요구되는 것과 동시에 안방이 부부전용의 공간으로서 작은 면적으로 그 기능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0. 주공간 사용변화 (단위: 세대수)

요인	변화내용	Ci	Cj	Ck	Cs	Ca	합
실 수	개실 증가			3	1	1	5
	부모의 거실 취침			3	2		5
	실의 용도변경	4	5	1			10
실 면적	가족 거실취침	2	3				5
	안방과 자녀실 교환		6	2	2		10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공간 사용변화의 내용을 분석을 통해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주요구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초기 단계의 가족(Cb~ Ci단계)은 거실에 자녀 및 가족의 주생활이 집중되고, 자녀는 부모와 함께 안방에서 취침함에 따라 공적공간의 충실화와 안방의 면적확대를 요구하며, 이 때에 거실은 공적인 기능의 공간일 뿐 아니라 자녀활동 및 가족생활의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녀가 성장하여 취침이 분화된 이후(Cj단계 이후), 안방은 부부의 전용취침공간으로 기능이 축소되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공간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녀실의 확대 및 수납공간의 충실화를 요구한다. Ck단계 이후의 이성자녀간 개실화 요구는 실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취침이 거실에서 이뤄지는 조정의 형태로 나타나며, 개실의 수 확보를 요구한다.

V. 결 론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른 일상행위 장소 및 공간사용특성을 파악하고 자녀의 성장과정 변화에 따른 주공간 사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의 일상행위의 발생장소는 변화를 보이며, 주거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0세~2세의 아동은 거실과 안방에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며, 3세~6세 자녀는 거실과 자녀실로 행위가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었으며, 8세 이상 자녀의 일상행위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거실과 자녀실로 활동 영역

이 뚜렷이 구별되어 나타났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사적행위는 점차 자녀실이라는 사적공간으로 정착되어 가며, 부모로부터 독립된 개인적 공간을 요구하게 된다. 주거공간의 구성 및 자녀실의 크기는 자녀의 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방 수가 적은 주택의 아동의 활동은 거실에서 발생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며, 개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보다 넓은 면적의 자녀실의 사용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족의 취침형태는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 변화하여 실사용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취학 전 자녀를 둔 Ci단계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부모-자녀가 함께 취침하며, 부분적으로 딸자녀의 개실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딸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Cj단계에서는 이성자녀 간에도 방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모와 분화되지 않은 취침형태도 지속되고 있었다. 딸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인 Ck단계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취침이 완전히 분리되고 있었으며, 자녀간 취침실 공유, 자녀간 취침실 분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주생활의 변화에 대해 거주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공간을 변화시켜 사용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실의 개수와 관련된 것과 면적에 관련된 것으로 구별되며, 개실 확보를 위해서는 개조를 통한 실의 개수 증가, 거실에서의 취침, 실의 용도변경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실의 면적이 부적합할 때에는 안방과 자녀실의 교체, 거실 중심의 취침을 통해 조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주요구를 도출하였는데, Ci단계까지는 침실 수 감소를 통해 거실과 안방의 면적확대를, Cj단계 이후부터는 안방의 기능 축소와 자녀실의 개실 및 면적확보가 요구되며,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주공간의 계획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1. 김미희(1992), 평면규모 30평 및 4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사용방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8, n.10 pp.25-39.
2. 김수암(1992), 공동주택의 가변형주호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3. 유영국(1992), 주거조정행위의 모형에 관한 분석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8, n.7, pp.43-50.
4. 이연숙(1993), 주거실내공간 계획을 위한 다차원 구조적 접근, 연세대학교논문집 vol.7, pp.67-80.
5. 임미숙(1996), 주거유형에 따른 아동의 주생활 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6. 松井艶子(1993), 住生活論, 東京:建帛社.
8. Earl W. Morris, Mary Winter(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New York: Wiley.
9. Robert B. Betchel, Robert W. Marans, William Michelson(1987), Methods in environmental and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Van Nostrand.